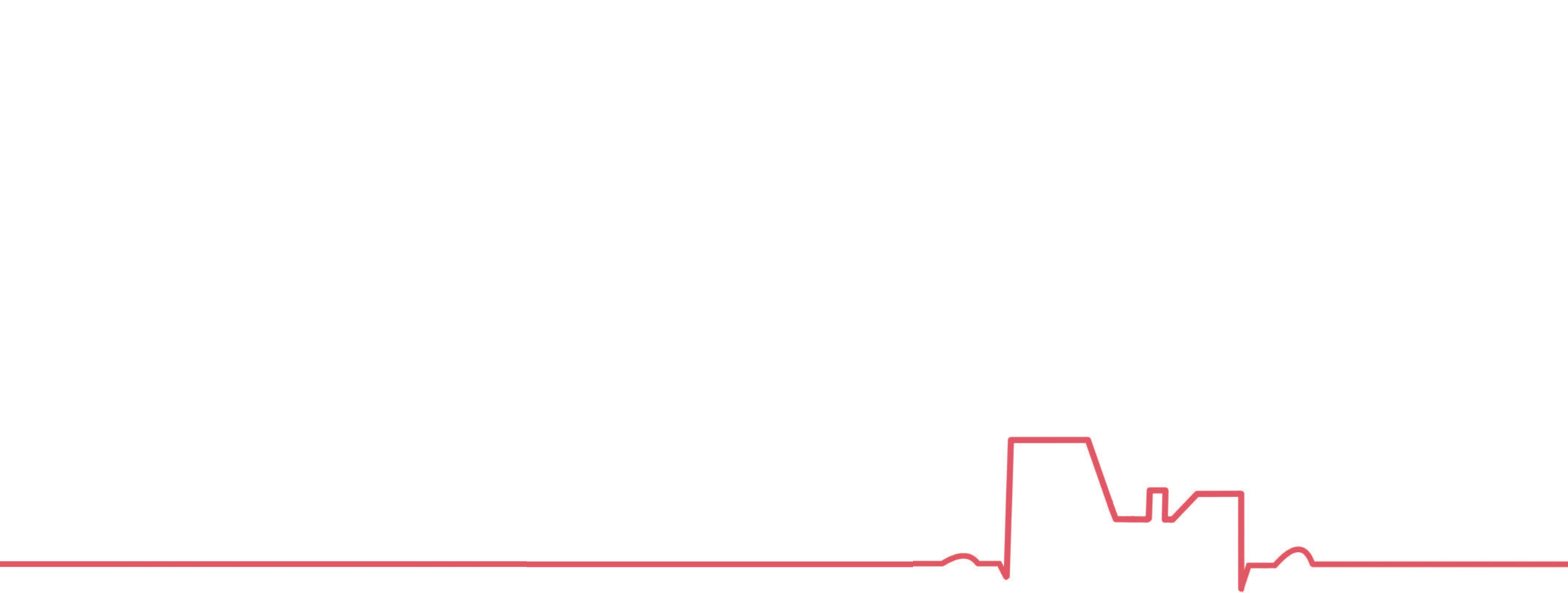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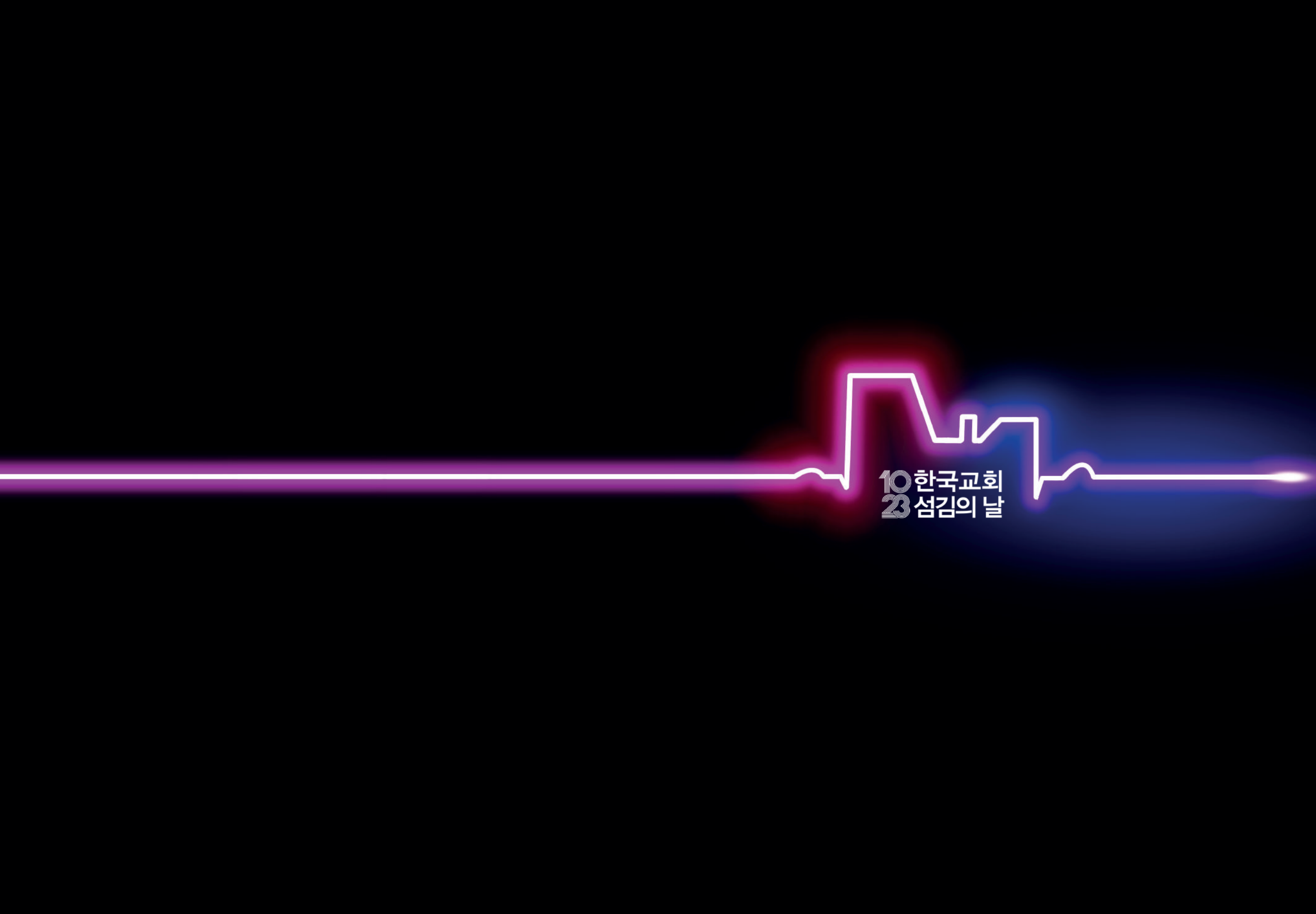
본 책자는 2023년 10월 23일(월)~24일(화) 1박 2일간 사랑의교회 현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어, '2033-50 비전'으로 재생산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꿈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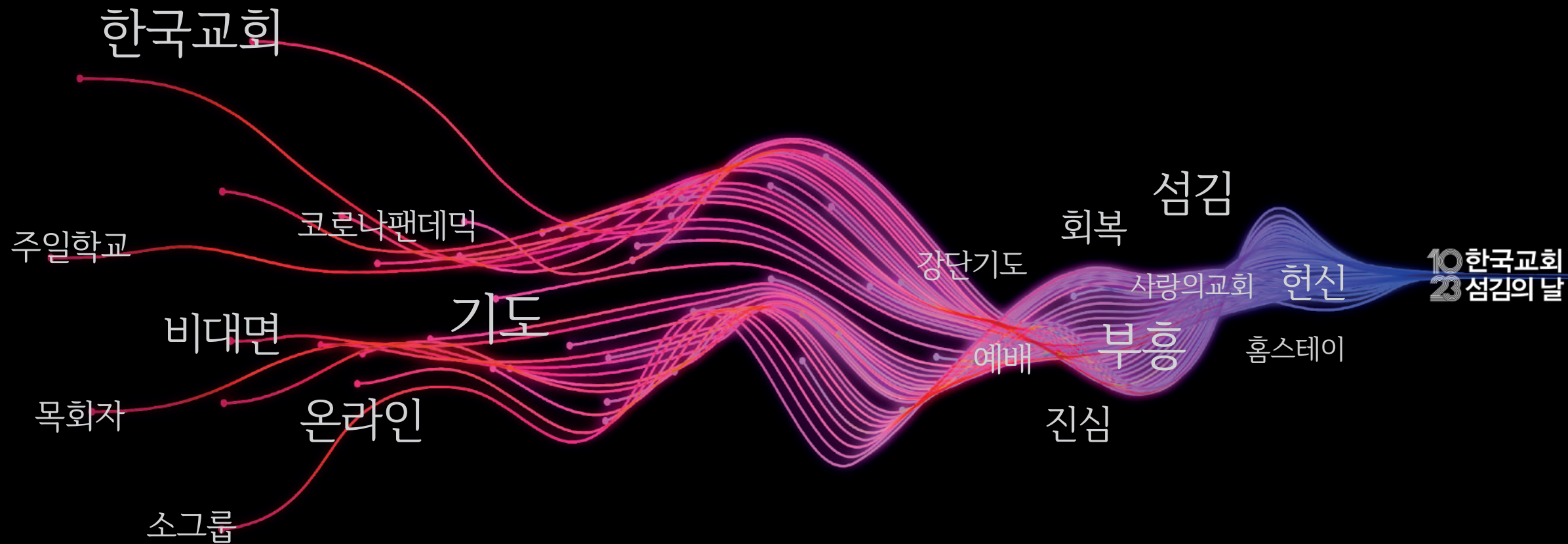
한국교회 부흥의 공진이 이어집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
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계 1:6)

본 책자는 '10. 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한국교회 가운데 '생명력'과 '부흥의 공진'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작 하였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한국교회를 그리기 위해 '심박수 측정기'를 형상화해 회복을 넘어 부흥을 소망하는 한국교회를 표현하였고, '10. 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부흥의 공진'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어지길 갈망하는 마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10 한국교회
23 섬김의 날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신적개입을 통해 초막절의 은혜가 생명수처럼 한국교회 가운데 흐르기를 원 하셨습니다. 사랑의교회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함께 부르짖는 7천의 기도를 통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기도용사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신 거룩한 꿈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우리는 '2033-50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

한국교회를 위한 부르짖는 제사장적 기도는 '2033-50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플랫폼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섬김

한국교회를 위한 물 떠 온 하인의 섬김은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영혼의 온전한 공급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목자의 심장' 철학을 실현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만한 물가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회복

한국교회를 향한 회복의 심포니(Symphony)는 목회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룩한 하모니가 되어 한마음으로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양극단으로 치달은 분열의 영을
사라지게 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되는 은혜의 장입니다.





1023 부흥의 첫걸음
온전한 제자의 삶

다-이해 온전난 1023
신앙기도회

1023
10.23.23 ~ 10.23.23

1023
10.23.23 ~ 10.23.23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백서

CONTENT

개요	007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	013
한국교회를 향한 섬김	015
한국교회를 향한 회복	017
목차	023
인사말	025

Chapter 1.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029
배경	035
강단기도	037
교회의 헌신	041
일정	043
프로그램	045
회복 메세지 및 선택강의	047
통계	049

Chapter 2.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은혜의 용광로가 작동하다

배경	055
주제	057
강단기도	061
섬김과 봉사	063

Chapter 3.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위한 첫걸음

개회예배	075
부흥 메세지	077
특별공연	081
목회스승과의 대담	083
산상기도회	085
창목회	089
7대 강령	091
선택강의	093
순장반	097
온전론	099
파송예배	101
통계	103

Chapter 4.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계획의 성취

현장화보	109
언론보도	123
축하 메세지	125
섬김 인터뷰	129
참가자 인터뷰	135
믿음보고 도구	141
기도제목	149

Chapter 5.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2033-50 비전을 꿈꾸다

2033-50 비전	153
은혜보고	155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 그토록 바라시는 ‘목자의 심정’ 철학을 깨닫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장으로 사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선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은 5,596명의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한 자리로 모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목자의 심정’ 철학으로 무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은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로 계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열의 영이 활개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신앙의 냉소주의, 비관주의, 패배주의가 삶의 자리에 스며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부흥의 문을 열기 위해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사역자와 성도의 혈관에 타고 넘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하나님께는 한국교회를 향해 그토록 바라시는 ‘목자의 심정’ 철학을 깨닫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장으로 사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7천명의 기도를 통해 분열의 영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말씀 자본, 기도 자본, 헌신 자본, 고난 자본을 응축시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아픔을 위로하는 신적 공유지(DIVINE COMMONS)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역'을 경험하는 뜨거운 부흥의 현장입니다.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한국교회에 회복의 장이 되었다면,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목자의 심장'을 회복하고 뜨거운 부흥을 갈망하는 은혜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한 회복과 부흥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 백서는 한국교회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노력으로 작게나마 기록한 책으로, 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날에 주신 은혜와 영광을 되새기며,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2033-50비전' 역사에 모두가 목도하고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후 2023년 10월 23일

이정현 목사



1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국교회 부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원산대부흥운동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회와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 운동. 남감리회 선교사 로버트 하디 (R.A Hardie, 1865-1949)에 의해 시작됨.



평양대부흥운동

1907년 1-6월 평양 시내 장로회와 감리회의 교인들과 학생들에게 일어난 회개와 각성운동. 1907년 1월 2-15일까지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평안남도동계남성사경회'가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됨.



백만명 구령운동

한국 민족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 민족 복음화라는 거대한 공동의 목표를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장로교와 감리교 6개 선교회가 힘을 결집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한 민족복음화운동.



빌리 그레함 서울전도대회

한경직 목사는 민족복음화를 위해 빌리 그레함을 초청하기로 결정한 뒤 전국적인 위원회를 조직하고 1973년 5월 30일 서울에서 빌리 그레함 서울전도대회를 개최했고,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325만명이 참석함.

1973년

민족복음화대성회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신교 32개 교단에서 참여한 전도집회에 1천여 명의 외국인과 1천 5백여 명의 재외동포를 포함해 7백만 명의 인원이 모여서 대성회를 이룸.

1977년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

9월 26-27일 양일간 5,596명의 목회자와 사모가 사랑의교회에 모여,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 주강사로 오정현 목사가 인도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 지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대규모 부흥집회였음.

2022년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10월 23-24일 양일간 목회자와 사모 7,000여명이 사랑의교회에 모였으며,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그토록 원하시는 온전한 부흥의 첫 발걸음을 모두 함께 내딛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선포함.

2023년

1974년

엑스플로 74

민족복음화의 열기가 타오르던 시대, 김준곤 목사를 대회장으로 하여 엑스플로 74 대회가 열림. 8월 13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 100만 명에서 160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총 655만 명에 이르렀고, 42만 3천명이 복음을 듣고 27만 3천명의 결신이 있었음.



세계복음화대성회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100주년 선교대회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의 사명을 확인하고, 민족통일과 한국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함.

1980년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2023년 6월 3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열림. 설교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통역에는 김하나 목사, 사회는 김의식 목사, 개회사는 김장환 목사, 개회기도는 이영훈 목사, 합심기도 인도는 오정현 목사, 축도는 김삼환 목사가 맡았으며, 당일 10만명이 참석함.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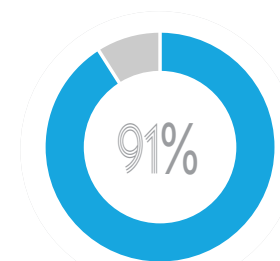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긴 어두움의 터널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일으킬 자리를 계획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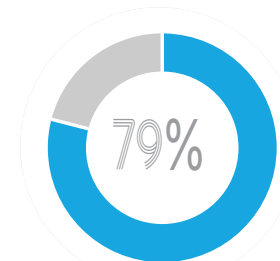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긴 어두움의 터널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일으킬 장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역의 돌파구가 필요한 이 때,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뜨거운 형애를 나누고 위로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충천(衝天)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5대 정신으로 '회복(RESTORATION), 재헌신(REDEDICATION), 재건(RECONSTRUCTION), 재복음화(REEVANGELIZATION), 부흥(REVIVAL)'이 필요함을 선포하며,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모임 자체가 불가하다고 할 때, 이것은 사랑의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수호해야 할 7가지 핵심가치(성경의 절대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령의 능력과 주권, 세계선교의 절박성, 공교회의 중요성, 평신도 사역의 소중성, 믿음의 세대 계승과 가정의 가치)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세우는 근간이 되었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출석교인 50인 이하 교회비율



행사전 기대감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였습니다

2022년 8월 29일 오전 6시, 오정현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강단 기도회에서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초막절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선포 하면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한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의 실질적인 시작은 ‘강단 기도회’였습니다. 2022년 8월 29일 오전 6시, 오정현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강단기도회에서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초막절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면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한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강단기도회 첫날부터, 이 자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증명하고 확증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신묘막측한 일을 보자고 선포했습니다. 강단 기도의 역사는 5일차에 1,400명이 넘는 등록자로 이어졌으며, 6일차에는 3,00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강단기도회 7일차에 오정현 목사는 1806년 뉴잉글랜드(NEW ENGLAND)에서 세계 영적 흐름을 바꿔 놓은 건초더미 기도운동(HAYSTACK PRAYER MEETING)을 예로 들며, 강단기도회가 이와 같은 자리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주여! 강단 기도회를 통해 영권과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각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외침은 강단기도회 8일차에 4,000명 등록으로 이어졌으며, 강단기도회 11일차에 5543명이 등록했으며, 최종 인원 5,596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강단기도회’를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이뤄진 ‘산상기도회’를 통해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현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섬기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초막절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비관주의와 패배주의를 깨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대한 섬김이 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뱀꼬리 잡는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믿으며, 사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한 거룩한 낭비를 통해 하늘의 부요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옵소서

주여! 이 강단기도가 건초더미 기도운동과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오병이어를 올려드리오니, 오벰에돔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오래 황폐된 곳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산 소망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평생 애걸복걸 하면서, 무릎 꿇고 엘리야처럼 조각구름의 증거를 소망하면서 전력투구를 해 온 인생의 기도제목들이 강단기도를 통해 응답 받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영적인 오병이어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 주소서”라는 찬양이 한국교회 주제가가 되어,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SINCERE HEART TO PEOPLE, WHOLE HEART TO GOD”)섬기는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재부흥의 진원지,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부흥의 끝자락 세대가 되지 않고, 부흥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큰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강단기도회를 통해 필요한 음성을 주시고, 방향도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여! 목자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100% 대면 예배 회복, 100% 온라인 사역 회복,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영적으로 솟아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물 떠온 하인의 심정을 경험하는 장이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섬긴 물 떠온 하인(요 2:7-9)처럼 헌신적인 섬김을 하였고,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마 14:16)"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홈스테이 제공자(단위:가정)



사랑의교회 봉사자수(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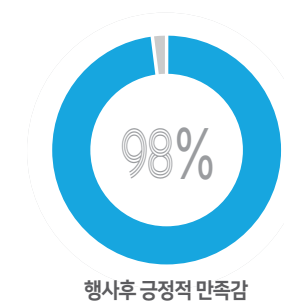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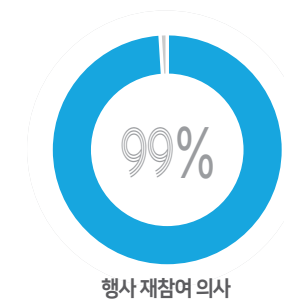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의 비밀병기인 강단기도회를 통해 점차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섬기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공유 되면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사랑의교회 성도들의 진심이 모아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호텔 및 가정에서의 홈스테이로 1,249실을 헌신했으며, 참가하신 목사님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섬긴 물 떠 온 하인(요 2:7-9)처럼 헌신적인 섬김을 하였고,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마 14:16)"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같은 섬김은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라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한국교회를 위한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참석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섬기면서, 부흥을 위한 비밀병기들을 제공함으로 한국교회를 위한 영적 먹거리들을 아낌없이 제공하였습니다.



9.26		9.27	
12:00 ~ 14:00	등록	8:00 ~ 9:00	코로나 극복의 비밀병기 ❶: 창목회
14:00 ~ 15:00	개회예배	9:00 ~ 9:30	휴식
15:00 ~ 15:30	회복메세지 I	9:30~10:30	코로나 극복의 비밀병기 ❷: 선택강의
15:30 ~ 16:00	휴식	10:30 ~ 11:00	휴식
16:00 ~ 16:30	회복메세지 II	11:00 ~ 12:30	코로나 극복의 비밀병기 ❸: 순장반
16:30 ~ 17:00	회복메세지 III	12:30 ~ 14:00	점심식사
17:00 ~ 18:30	저녁식사	14:00 ~ 15:00	코로나 극복의 비밀병기 ❹: 40일 캠페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18:30 ~ 19:30	섬김의 날 (GALA)공연	15:00 ~ 15:30	은혜 나눔의 시간
19:30 ~ 20:00	부흥을 위한 Q&A	15:30 ~ 16:00	파송예배
20:00 ~ 21:00	산상기도회 (장소: 안아주심 본당)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 사랑의교회는 '은혜의 저수지', '사역의 병참기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첫째 날은 '회복'이란 주제로, 둘째 날은 '부흥'이란 주제로 저수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째 날 개회예배에서 오정현 목사는 '부흥의 DNA를 가진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침체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대안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K부흥의 능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출발점으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날 '부흥'을 위한 사랑의교회 비밀 병기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목회(창조적인 목회자들의 모임), 순장반(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치고 다락방을 인도하는 남녀 순장들을 위해 마련하는 은혜의 장), 선택강의 및 "40일 캠페인 우리가 교회입니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참석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섬기면서, 부흥을 위한 비밀병기들을 제공함으로 한국교회를 위한 영적 먹거리들을 아낌없이 제공하였습니다.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은혜의 저수지', '사역의 병참기지'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크든 작든 주님 손이 함께하시는 교회는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강한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9. 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사랑의교회는 강의를 통해 '은혜의 저수지', '사역의 병참기지'를 제공했습니다. 오정현 담임목사는 개회예배 시 '부흥의 DNA를 가진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크든 작든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교회는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강한 회복과 부흥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오정현 담임목사의 설교에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심겨져 있었고, 안아주심의 본당에 모인 목회자들은 큰 울림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회복 메시지 시간에는 '기독교 복음주의 거장' 존 스토틀의 제자인 마이클 리브스(유니온 신학교 총장)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이 회복과 부

흥을 위한 유일한 복음임이 선포되자,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의 가슴은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복 메시지는 오스 기니스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오스 기니스는 문명의 전환기 앞에서 성경 위에 세워진 서구문명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적 혁명인 영국혁명과 미국혁명의 정신을 살리되, 반성경적 혁명인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에 대해서는 바르게 깨닫고, 오늘날을 사는 시대적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회복 메시지 시간에는 '복음주의 교회가 수호해야 할 7가지 핵심 가치'가 설명되었으며, 참석한 목회자들은 어떤 가치를 다시금 세워야 할지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튿날 사랑의교회는 창목회와 순장반을 통해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밀병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창목회<창조적인 목회자들의 모임>는 사랑의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 날 열린 창목회에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무엇이 목회의 본질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장반을 통해서는 담임목사와 사랑의교회 순장들이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한국교회에 소개했고, 이를 통해 소그룹의 중요성과 리더 그룹과의 목회철학에 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택강의를 통해서는 '이론'과 '신학'이 겸비된 다양한 목회 방법이 제공되었습니다. 복음주의 7대 강령에 기초한 주요강의 주제들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귀한 먹거리가 되었고,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9. 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사랑의

교회는 '은혜의 저수지', '사역의 병참기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무너진 곳을 새롭게 수축하고, 재건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참여 인원(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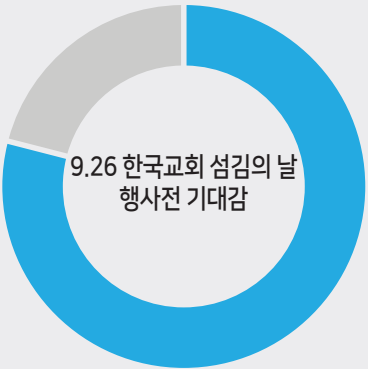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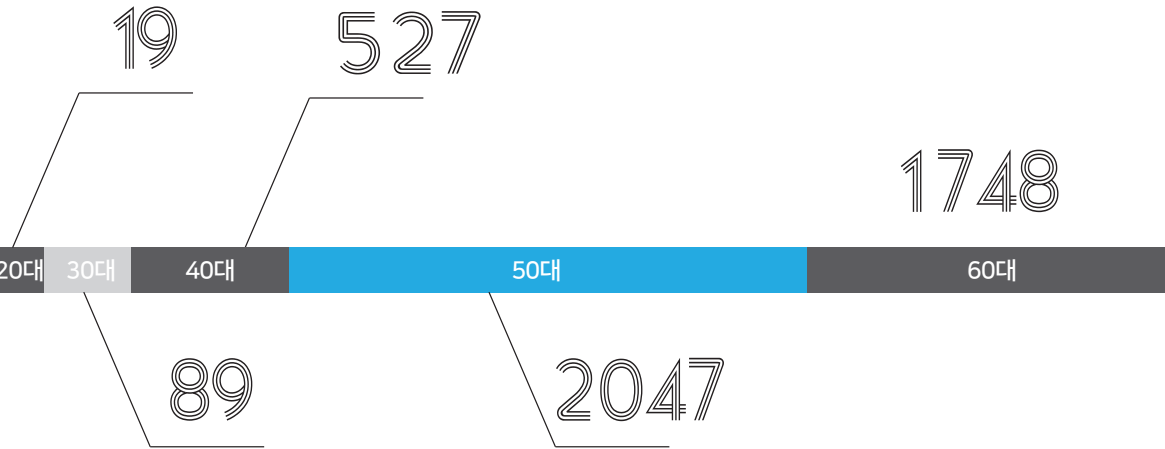
5596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 홈스테이 이용 인원(단위 : 명)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 홈스테이 제공자(단위 :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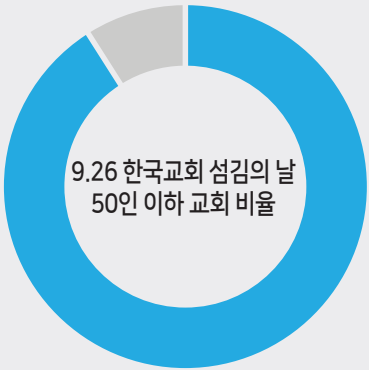
2360

318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참가자 연령대(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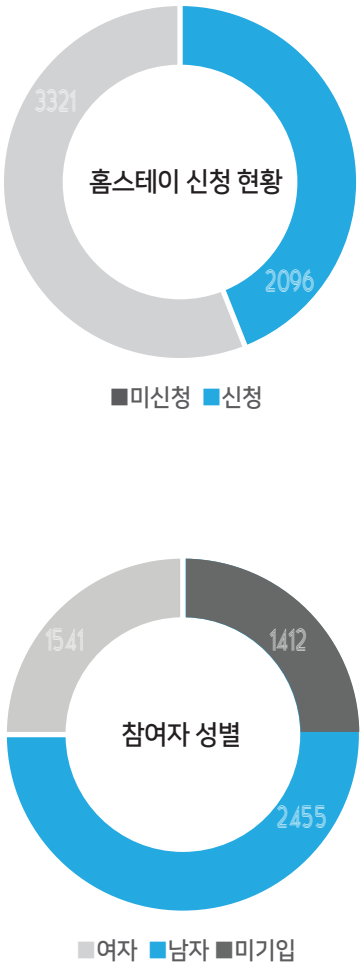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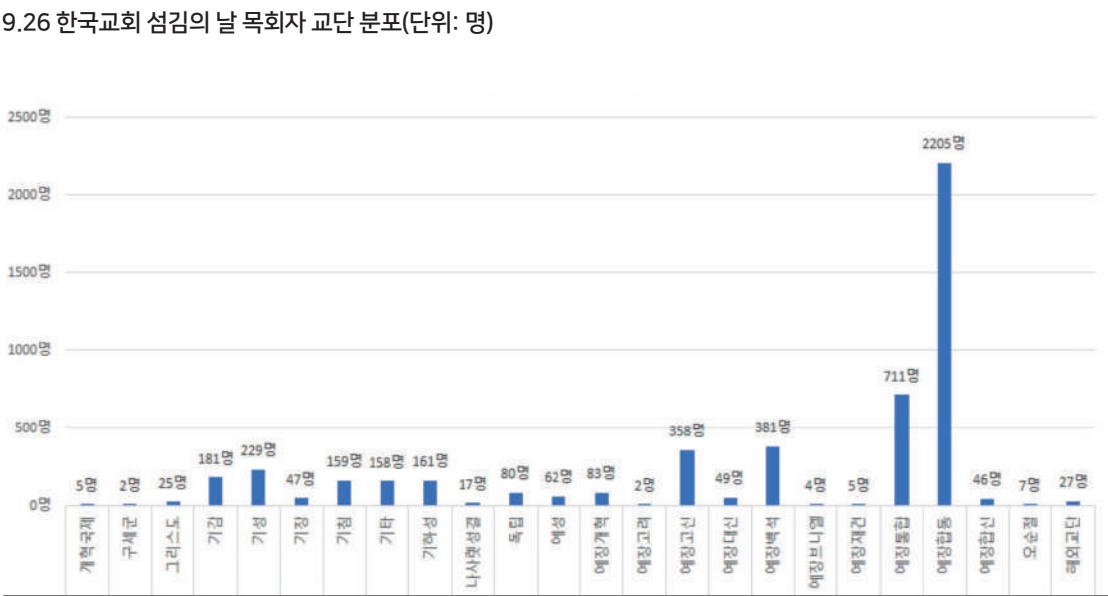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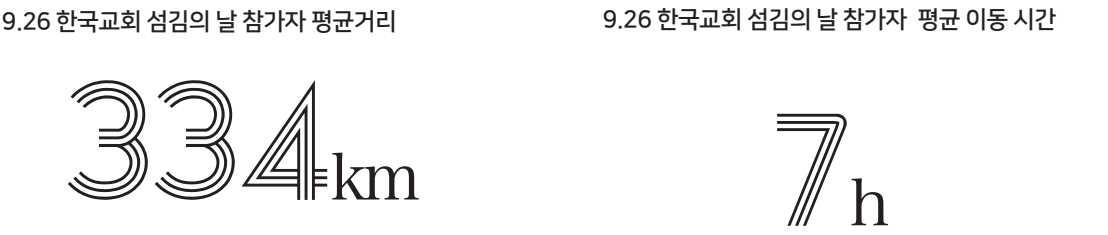
79.4%



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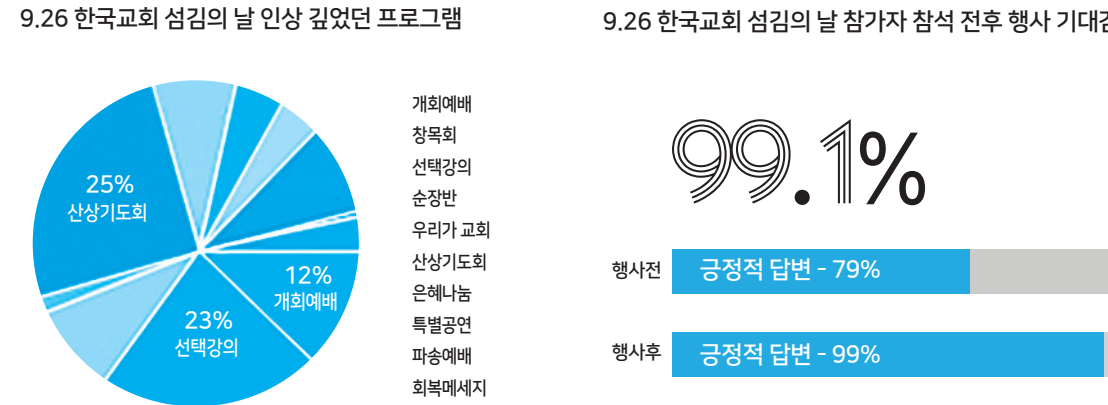
99.1%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게 한 2022년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5,596명의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참석하여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은혜의 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교파와 교단을 뛰어 넘은 3,200여개 교회의 사역 물품후원과 3,200여개 교회의 40일 캠페인 자료 후원을 통해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의 실체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신묘막측한 은혜는 한국교회 현장을 차고 넘치게 하여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는 날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2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은혜의 용광로가 작동하는 날입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한국 교회의 영광
이 회복돼야 한다는 생각에 제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9. 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5,596명의 참가자들은 그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쌓인 한을 풀 듯 안아주심의 본당이 떠나갈 듯 부르짖는 기도를 행하였고, 다시 한번 더 이 같은 놀라운 역사의 장이 일어나기를 갈망했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대한 소문은 각종 SNS와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를 통해 전세계 한인 교회와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까지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바람이 사랑의교회 온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자"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시작된 '10. 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광고 후 5일 만에 6,000명 모집 인원이 마감되었고, 이후에도 참가 문의가 쇄도해 1,000명의 참가자를 더 모

으는 일로 진행되었습니다.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회복을 넘어 부흥을 갈망하는 이들에 의해 진행된 '은혜의 마중물'이었다면,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길을 열망하는 이들에 의해 시작된 '은혜의 용광로'였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부흥을 열망하는 온전한 제자의 첫걸음이 되어,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부흥의 첫걸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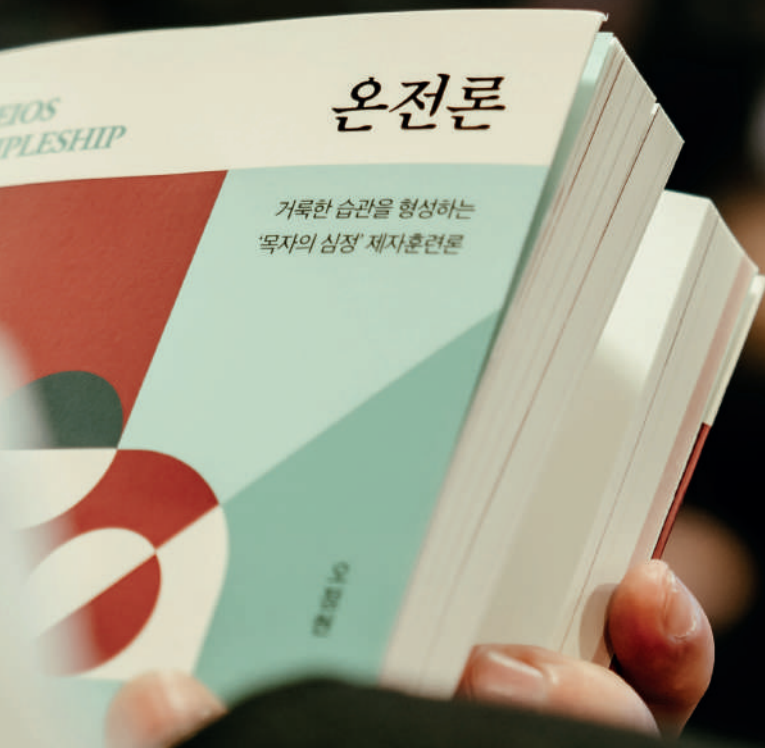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부흥의 첫걸음이 시작되려면, 온전한 제자의 삶을 갈망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의 주제는 “부흥의 첫걸음,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오정현 목사가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CALLED TO AWAKEN THE LAITY)에서 전세계 목회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강의해 온 ‘온전론’을 기초로 세워진 것입니다.

<온전론>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된 목회적 각성과 신앙적 고백입니다. 바로 이 질문을 통해 <온전론>의 핵심인 ‘목자의 심정’ 철학이 세워졌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사역의 비밀병기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부흥의 첫걸음이 시작되려면, 온전한 제자의 삶을 갈망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은혜의 공유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흥을 갈망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나눈 <온전론>은 오정현 목사의 40년간의 목회 노하우를 집대성한 책으로, 영혼 구원과 영적 재생산의 열매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기를 잃어버 한국교회의 비상을 위해 은혜의 플랫폼 (PLATFORM) 역할을 했다면,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온전론>을 통해 부흥의 첫걸음을 위한 은혜의 신적 공유지(DIVINE COMMONS)에 입성하는 날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선포된 “부흥의 첫걸음, 온전한 제자의 삶”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며, 한국교회 현장을 적시는 은혜의 낙수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이 주제는 사랑의교회 모든 영가족들의 마음에도 은혜의 공진을 일으켜, 생명력 넘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다같이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재산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재산권을 우리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첫걸음을 위해 앞장 서서 나눌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진심(眞心)으로, 하나님께는 전심(全心)으로”라는 주제 위에, “부흥의 첫걸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세우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은혜의 공진이 한국교회를 넘어 전세계로 뻗어 나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한 강단기도회에서 신묘막측한 신적개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부으심

이 충만케 하셔서, 모두가 은혜받고 돌아가는 신묘막측
한 신적개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일차 주여!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7일차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이 충만케 하셔서, 모두가 은혜받고 돌아가는 신묘막측한 신적개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일차 주여!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적개입을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8일차 7천명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명받고 주님께서 일하게 하옵소서

3일차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려는 모든 묵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9일차 온 교회와 온 성도가 감사의 제물이 되었사오니, 이 감사가 한국교회 전체의 감사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4일차 청계산 산상기도회에서 말씀이 한국 교회사에 놀랍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10일차 주여! 목회자 7천 용사들을 기도를 통해 섬기는 교회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5일차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기도, 합당한 영광을 올려 드려. 2천만 구령운동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11일차 주여! 목회자 7천 용사들이 드리는 구천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6일차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악한 세력을 향한 선제공격하게 하옵소서

12일차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복음의 영광 충만하게 하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되게 하옵소서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해 우리는 진심(眞心)과 전심(全心)으로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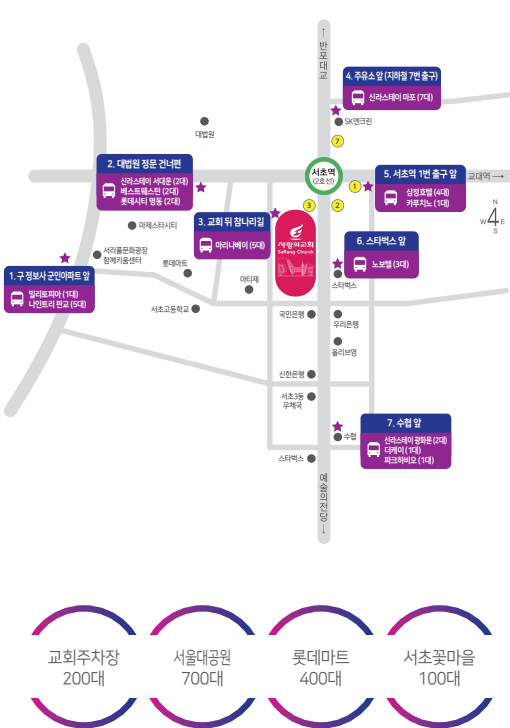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한 우리들의 섬김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위한 부흥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들을 섬기기 위해 등록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한 우리들의 섬김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위한 부흥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 등록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7천여명의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불편없이 섬기기 위해, 총 30대의 등록 데스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등록 동선을 고려하여 사랑의교회 드림센터(남측)로는 부부 등록자를, 미션센터(북측)로는 개인 등록자가 접수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7천여명의 등록자들은 10시부터 자연스럽게 입장할 수 있었고, 개회예배 전에 모든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7천여명의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안전하게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섬겼던 수고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해 우리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참가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모시기 위해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으로 모시면서, 오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위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베풀다고 생각했으나,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도리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들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새겨 주신 믿음의 구호입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섬기기 위해 교통 섬김을 위한 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모실까’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귀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주차를 위해 ‘교회주차장, 서울대공원 주차장, 롯데마트 주차장, 서초꽃마을 주차장’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또한 편하게 주차 이후 교회로 모실 수 있도록 25인승 및 45인승 셔틀버스가 양일간 운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섬김은 목자의 심정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는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고백합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한 우리의 진심(眞心) 중 하나는 오신 참가자 목사님께 따뜻한 밥 한끼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7천여명이나 되는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였고, 여러모로 부족한 식사이지만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첫날 저녁식사와 다음날 점심 식사를 섬기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이 즐거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였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3일(월)	
12:00~14:00	등록
14:00~15:00	개회예배
15:00~15:30	부흥 메시지 I (릭 워렌 목사)
16:00~16:30	부흥 메시지 II (글린턴 아놀드 교수)
16:30~17:00	부흥 메시지 III (크리스찬 소니아 목사)
18:30~19:30	고품격 문화공연
19:30~20:00	목회 스승과의 대담
20:00~21:00	산상기도회 (사랑의교회 본당에서 진행)
10월 24일(화)	
8:00~8:30	부흥의 비밀병기 1 - 창목회
8:30~9:00	부흥의 비밀병기 2 - 7대 강령
9:30~10:30	부흥의 비밀병기 3 - 선택강의
11:00~12:30	부흥의 비밀병기 4 - 순정반
14:00~15:00	부흥의 비밀병기 5 - 온전론 I
15:30~16:30	부흥의 비밀병기 6 - 온전론 II
16:30~17:00	폐회예배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해, 7천여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등록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개인 등록자는 미션타워로 모시고, 부부 등록자는 드림타워로 모시면서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발생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인 등록 데스크뿐 아니라, 키오스크까지 총 30대의 등록 데스크를 준비하여 오신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고민 하나가 모여, 지혜로운 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하에 동참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3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한 한국교회의 고백은 “주님 밖에 없습니다”였습니다

개회예배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고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어떤 한계도 돌파하는 꿈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 줄 이가 없사오니”(역대하 14:11)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아사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HIS ARMY, 여호와 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내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깨달으시고, 어떤 한계도 돌파하는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교회 안아주심의 본당은 7천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개회예배는 “WAY MAKER” 영상으로 시작되었고, 오케스트라의 찬양 연주와 쉼기나 찬양팀이 함께 하는 찬양이 안아주심의 본당 안에 가득했습니다. 다함께 기립하여 “창조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찬양했습니다. 찬양과 시편의 낭독, 기도와 특

송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로 가득 찬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정현 담임목사를 통해 선포케 하신 말씀의 제목은 “주님 밖에 없습니다”(역대하 14:9~13)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사역의 2막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자, 안아주심의 본당 안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생명력 넘치는 맥박 소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후 큰 변화를 경험한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아사 왕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직면한 것과 같지만, 이후에는 사역의 2막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에 불어 닥친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새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의 부흥메시지는 사명 재무장을 위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절대 사역을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사역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
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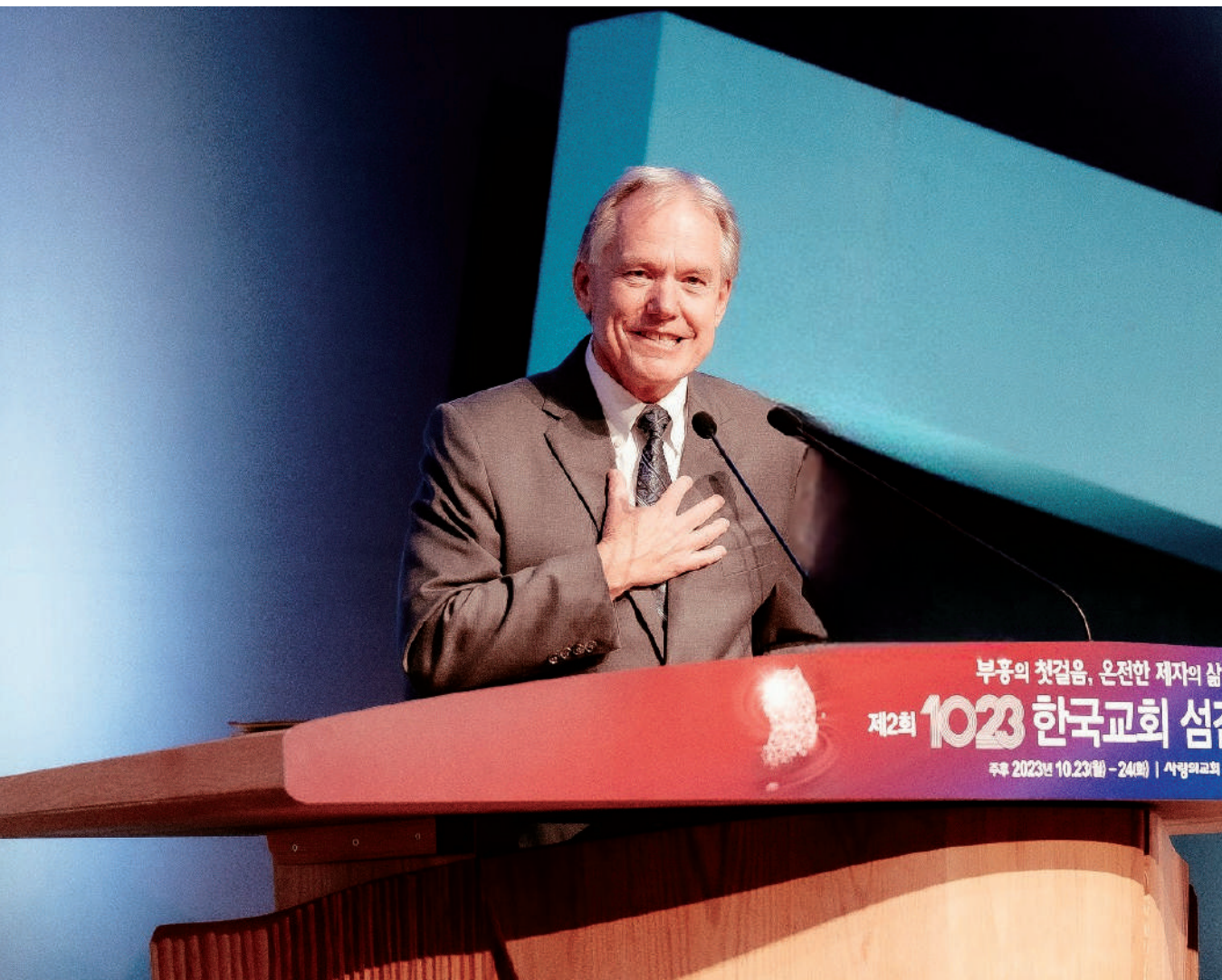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2천 년 역사에 여러 전염병
이 있었지만 코로나는 다른 전염병과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는 세계 모든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목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절대 사역을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
니다. 절대 사역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
고 실망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워렌 목사는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시대적 변화를 수
용하고,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지도자의 역
할을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이 시간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개입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2천 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위해 동참해야 할 시기임을 밝혔습니다.

사랑의교회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선포된 부흥 메시
지는 다시 한번 참석자들의 사명을 재무장시켰습니
다.

첫 번째 부흥 메시지는 릭 워렌(RICK WARREN) 목
사의 “당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GOD’S
PURPOSES FOR YOUR CHURCH)이었습니다. 릭

예수님을 추종하는 '팬들'이 아니라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촉구하며,
누가복음 9장의 본문을 통해 변명 없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면서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할 것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부흥 메시지는 클린턴 아놀드(CLINTON ARNOLD) 교수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영적 전쟁"(SPIRITUAL WARFARE IN A POST-PANDEMIC ERA)이었습니다. 클린턴 교수는 영적 전쟁의 치열함에 대해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6장의 본문을 통해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의 책략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함을 전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할 것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10. 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의 강력한 부흥 메시지는 온전한 제자로 사명 재무장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을 넘은 부흥의 역사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시작되어, '2033-50 비전'의 성취로 정점을 찍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흥 메시지는 크리스찬 소니아(CHRISTIAN SONIA) 목사의 "'팬'으로서의 제자가 아닌 '온전한' 제자로"(NOT JUST A 'FAN' DISCIPLE, BUT A 'TELEIOS' DISCIPLE)였습니다. 크리스찬 목사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팬들'이 아니라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촉구하며, 누가복음 9장의 본문을 통해 변명 없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면서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은혜의 교향곡으로 어우러진 화합의 장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존재합니다. 고품격
문화 공연은 지친 마음에 대한 회복과 쉼을 누리는 시간이었
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존재합니다. 고품격 문화 공연은 지친 마음에 대한 회복과 힘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홍식 지휘자가 지휘하는 코리안 크리스천 필하모닉(KCP: KOREAN CHRISTIAN PHILHARMONIC)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소프라노 박하나,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테너 정호윤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주디타 중 <뜨겁게 입맞춤하는 나의 입술>, 투란도트 중 <아무도 잠들지 말라>, 사랑의 묘약 중 <여러분 들어 보세요> 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오페라의 곡들을 노래하였습니다. 익살스러운 연기와 함께 무대 아래에서 가까이 호흡하며 진정한 심과 회복을 누리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의 기도>, <나같은 죄인 살리신>,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의 찬양과 함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연주는 참석한 목회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사람을 향해
진심으로 나아가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
조금 더 새로운 것이 없을까'라는 목자의 심정에서
부터 시작된 결과입니다.

코리아 크리스천 필 하모닉 프로그램

	지은: 김홍서 외 2 사본: 일제강점기-윤성명
관원가 / '죽상안과 루르델라' 시작 Michael Elstak / 'Tudus & Lufdelu' Overture	
리더로 / 오해와 '죽상안과' 중 '조금씩 잊을수록은, 나의 입술' Pierre Lohier / 'Morte Ligne, du Morte au bord' from 'Tudus & Lufdelu'	소프라노: 박미리
부두리 / 오해와 '루르델라' 중 '죽상안과 침몰의 발라' G. Parent / 'Morte D'Amour' from 'Tudus & Lufdelu'	테너: 박준호
도나테리 / 오해와 '리더와' 도약 중 '여러분 들어 보세요' G. Desmet / 'Tudus, Lufdelu' from 'Tudus & Lufdelu' of 'Morte'	메조소프라노: 서유림
마르시니 / 오해와 '가멜레타리' 루스다타나 간주곡 Pierre Menager / 'Intermezzo from Violette Rancore'	
알프리오 / 주희 기조 A. H. Mahieu / 'The Lady Prayer'	소프라노: 박미리
문송가 / 하비와 '죽상안과' - 나 같은 젊은 일리진 Wendy de Josselyn / 'Amazing Grace'	테너: 박준호
나운열 / 하비와는 나의 죽자나니 - 시련 고백 By Bar-nun / 'The Last in my childhood' - Part II	메조소프라노: 서유림
리글레르 연극 / 태 주는 강할 참요 Art. by Camp (Lohier) & Wright (Parent) from 'Our God'	
문송가 / 죽 하나니 적으실 모신께 Wendy de J. S. Selby / 'How Green They Are'	소프라노: 서유림 / 메조소프라노: 서유림 / 테너: 박준호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좋은 만남을 통해 성장하는 배움의 터전입니다

“목회의 핵심은 교회가 가진 믿음의 용량입니다. 믿음의 용량은 직분이 아닌 사명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영성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형성됩니다.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다. 갱신의 지름길은 제자훈련을 통해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러지고, 다음 주의 예배가 내 인생의 첫 예배인 것처럼 준비돼야 합니다.”

“선대가 이루지 못한 일을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의 핵심은 교회가 가진 믿음의 용량입니다. 믿음의 용량은 직분이 아닌 사명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영성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형성됩니다.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는 주일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일어설 것이며, 한국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능히 넉넉히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 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특별한 이유는 좋은 만남을 통한 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원 장로와 윤수영 집사의 원숙한 진행을 통해 오정현 담임목사와 윤난영 사모의 솔직 담백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를 개척한 후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그리고 메가처치(MEGA CHURCH)를 섬기기까지 평생에 걸친 목회 사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경험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담을 마친 후 오정현 담임목사는 소프라노 김순영의 <광야를 지나며>를 참석자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좋은 만남을 통한 성장이 있는 배움의 터전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산상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기도자본을 회복하였습니다

산상기도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다시 한 번 사명을 고취시켰으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0. 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이뤄진 산상기도회는 한국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생활 터전 주위로 산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산기도의 영성을 통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진행된 산상기도회는 바로 선조들이 물려준 기도자본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정현 담임목사는 현 시대의 풍조에 무릎 꿇지 않

는 7천여명의 용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강력하게 응답해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기적과도 같은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면서 산상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산상기도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사명을 고취시켰으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된 우리들에게 주의 일을 맡겨 주옵소서! 엘리야의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처럼, 이 시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강력하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칠천의 기도 용사들이 기도할 때 민족이 하나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독교는 영광스러우며, 기독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관주의와 패배주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제사장적인 기도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자본으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33-50 비전’을 이루게 하사 대한민국의 50%가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사역의 자세를 바로 세웁니다

창목회는 사랑의교회 120여 명의 목회자들이 매주 화요일
아침 7시에 모여 말씀과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으로,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진행된 창목회에서는 현장에 참
여한 사역자들과 함께 꿈과 비전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창목회(창조적인 목회
들의 모임)를 통해 우리가 나눈 것은 사역자로 가져
야 할 자세였습니다. 창목회는 사랑의교회 120여
명의 목회자들이 매주 화요일 아침 7시에 모여 말
씀과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국
교회 섬김의 날에 진행된 창목회에서는 현장에 참
여한 사역자들과 함께 꿈과 비전에 대해 나누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끝없네’라
는 찬양은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정현 담임목사는 교
회가 어떤 곳인지를 선포하면서, 매주마다 FINISH
AND START라는 개념으로 사역자의 자기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 또한 창목회 사역자의 자세로 오정현 목사
는 ‘THE STANDARD OF EXCELLENCE(최고의 수
준)’, ‘THE ATTITUDE OF SERVANTSHIP(섬김의
태도)’, ‘THE IMPORTANT OF INDIVIDUAL(한 사
람의 소중성)’을 갖추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

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진행되는 창목회
는 사역자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으며, 한
국교회의 근간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선포된 7대 강령은 복음의 절대가치를 세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움직여가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복음주의 7대 강령에 대한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의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7개의 핵심 가치를 나누며 교회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움직여가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복음주의 7대 강령에 대하여 하는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의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성경의 절대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령의 능력과 주권', '세계 선교의 절박성', '공교회의 중요성', '평신도 사역의 소중성', '믿음의 세대 계승과 가정'이라는 7개의 핵심 가치를 나누며 교회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본질을 지켜가야 하고, 본질을 바로 세워갈 때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심정으로 본질을 바로 세워갈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부흥의 비밀병기를 누리는 신적 공유지입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부흥의 비밀병기를 공유하는 6개의 선택강의가 열렸습니다. '설교의 두 기둥'이란 제목으로 박희천 목사(내수동 교회 원로)는 목회자가 설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 자료발굴을 잘 해야 하며, 성경을 한없이 많이 읽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의했습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부흥의 비밀병기를 공유하는 6개의 선택강의가 열렸습니다.

'설교의 두 기둥'이란 제목으로 박희천 목사(내수동 교회 원로)는 목회자가 설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 자료발굴을 잘 해야 하며, 성경을 한없이 많이 읽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의했습니다. 특별히 한 한학도(漢學徒)가 맹자(孟子)를 6,000번 읽는 사이에 문법이나 구문법 지식을 초월하여 孟子三千讀不聞卓之聲에서 孟子三千讀不聞卓之之聲으로 바꾸게 된 것과 주역(周易)을 3,000번 읽는 사이에 가족곤을 세 번 갈았다는 공자의 '위편삼절'(韋編三絕)의 예시를 통해, 목회자들의 성경을 읽는 노력이 그들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교수는 '잠언의 생명나무와 제자도'(잠3:18)라는 제목으로, 잠언을 비롯하여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제자도와 연관하여 강의

하였습니다. 에덴동산에서부터 등장한 생명나무는 잠언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일상의 기쁨, 즐거움, 명예, 부와 건강한 삶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는 사도 요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생명으로 연결됨을 가르쳤고, 참석한 목회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적 사실을 깨닫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삶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은 '우리의 소원, 부흥'이란 제목으로 호세아의 본문을 통해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앗수르에게 멸망 당하기 전의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와 같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빠져 있는 9개의 우상에 대한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성규 총장은 '돌아가다'(슈브)는 단어가 '회개하다'와 '부흥하다'로 사용되는 것임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곧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부흥의 비밀병기를 공유하는 6개의 선택강의가 열렸습니다. 박명수 교수는 '대한민국, 기독교, 그리고 자유연대'라는 제목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기 위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박명수 교수는 '대한민국, 기독교, 그리고 자유연대'라는 제목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기 위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한 이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21세기 대한민국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광식 교수의 강의는 '제자도의 세 단계: 제자 되기, 제자 살기, 제자 삼기'라는 제목으로 제자도의 과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먼저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하며 바른 신앙고백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강의했습니다. 이후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을 지키며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 살기의 과정이 강조되었습니다.

사랑글로벌아카데미의 윤난영 교수는 '영혼 돌봄을 위한 영성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영혼을 목양하는 관점에서 영성 형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윤난영 교수는 영혼을 돌보는 일이 진리 안에서 은혜의 식에 사로 잡혀야 하며,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목회자와 사모는 영혼을 돌보기 위해 영성 훈련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거해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처럼 '10. 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선포된 선택강의는 부흥의 비밀병기를 공유하는 신적 공유지(DIVINE COMMONS)가 되었고, 재건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다락방의 부흥을 함께 꿈꿉니다

순장반은 사랑의교회 부흥을 위한 비밀병기로 여순장반, 남순장반, 여직장인 순장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여순장반 시간은 목회자와 순장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며 부흥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펼쳐진 순장반은 목회자가 준비한 진액을 쏟는 시간입니다. 순장반은 사랑의교회 부흥을 위한 비밀병기로 여순장반, 남순장반, 여직장인 순장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여순장반 시간은 목회자와 순장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며 부흥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함께, 귀납적 소그룹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다락방 교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회자가 진액을 쏟아 준비된 순장반의 내용이 순장들을 통해 각 다락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순장반은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자, 은혜의 파이프라인(PIPE-LINE)입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위한 초석을 다진 날입니다

온전론에서 오정현 담임목사는 “온전함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삶”이라고 소개하며, 그리스도인만이 온전함에 고봉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오정현 담임목사의 목회 여정을 농축시킨 <온전론>이 세상 가운데로 소개된 날입니다. <온전론>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목회적 각성과 신앙적 고백이 담긴 책입니다. 온전론에서 오정현 담임목사는 “온전함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삶”이라고 소개하며, 그리스도인만이 온전함의 고봉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통찰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며, 앞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더 나은 사역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온전론의 1부는 ‘온전론의 심장’과 뿌리’로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소유해야 하는 목자의 심정을 다룹니다. 2부에서는 ‘온전론의 줄기’로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역자가 붙잡아야 할 교회론과 온전론의 시각으로 푸는 성령론, 그리고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가는 목회자의 품성과 온전한 제자훈련의 목표를 제시하

는 목회론을 담았습니다. 3부에서는 ‘온전론의 열매’로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온전한 제자로 훈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영역들을 실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은 ‘생각, 감정, 의지, 관계, 행실’의 각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예배, 가정, 일터, 선교, 문화’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는 어떻게 제자가 그리스도의 왕적 다스림을 받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론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무엇을 바로 세워야 하는 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향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귀하게 쓰이는 먹거리로 귀하게 사용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의 파송예배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사명의 장입니다

제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파송예배는 부흥의 현장이었으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7천여명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을 파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26 한국교회 섬김의 날’,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파송예배는 부흥의 현장이었으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7천여명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을 파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정현 담임목사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22)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목회의 현장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결코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새로운 통찰로 이해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모인 7천 명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념하고, 헌신을 서약하였습니다.

특히 파송예배 후에 진행된 은보혜강상 시상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대 옥한흠 목사님의 호(號)인 ‘은보’와 오정현 담임목사의 호(號)인 ‘혜강’을 따라 은보혜강상으로 명명한 시상은 사랑의교

회의 수선대후(守先待後)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상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라는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계승하여 제자훈련의 목회를 실천한 송내사랑의교회(박명배 목사 시무)와 예안교회(오주환 목사 시무)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 나눔의 시간은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자원하여 헌신한 물품들이 공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첨을 통해 준비된 물품들이 나누어질 때마다 참석한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진심으로 서로 축복하였고, 각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10. 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파송예배는 참석한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부흥의 첫걸음을 떼는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뇌리에 기억될 것이며,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역사로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될 것입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참여 인원(단위 : 명)

6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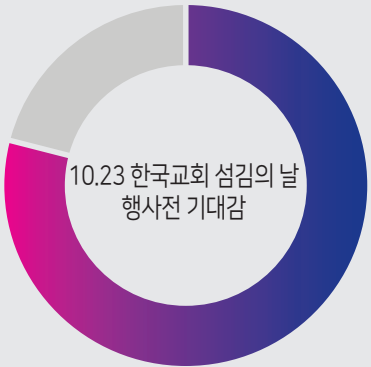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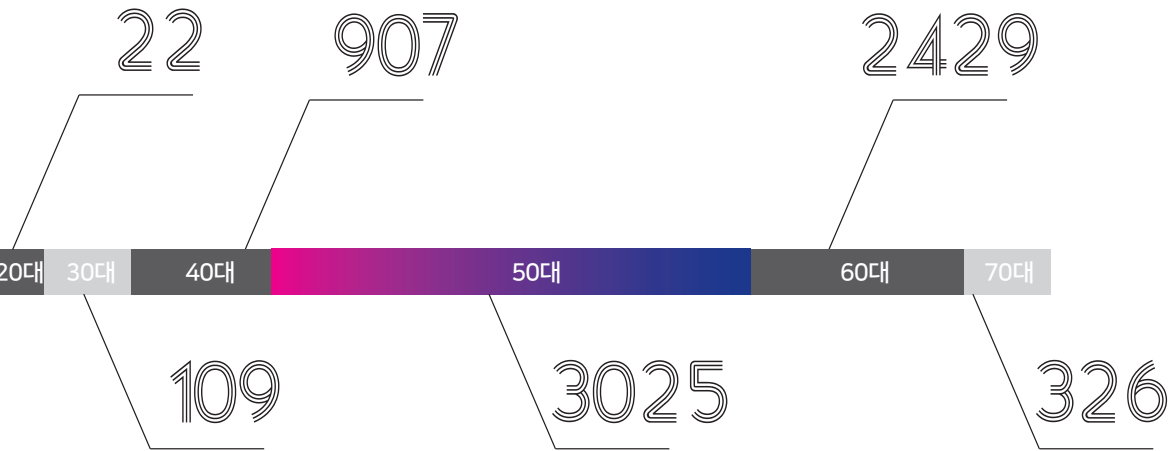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홈스테이 인원(단위 : 명)

3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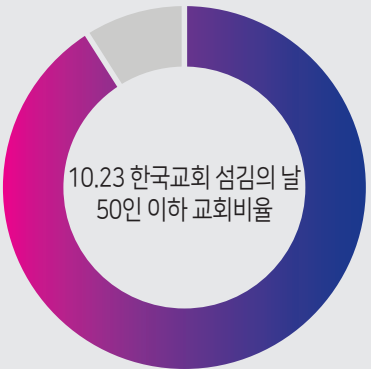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홈스테이 제공자(단위 : 가정)

318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참가자 연령대



79%



91%



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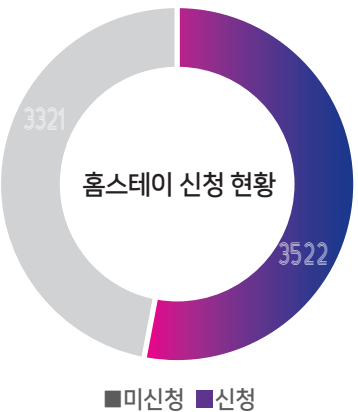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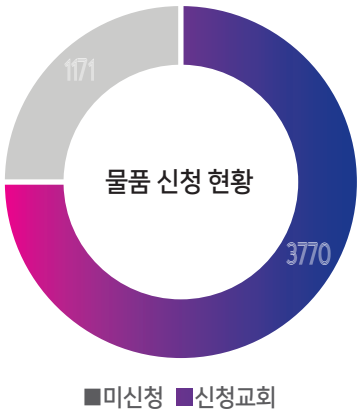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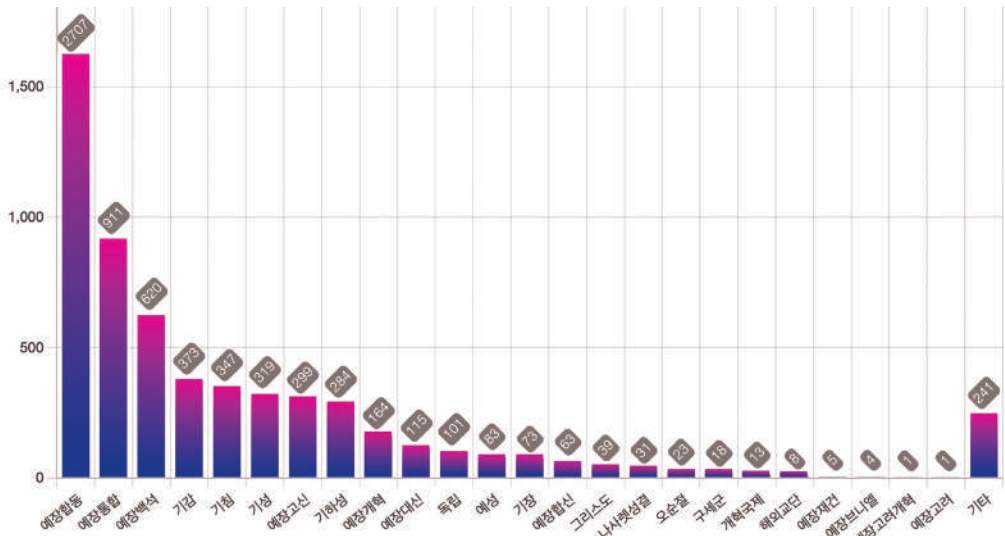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참가자 평균 이동거리

473km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참가자 평균 이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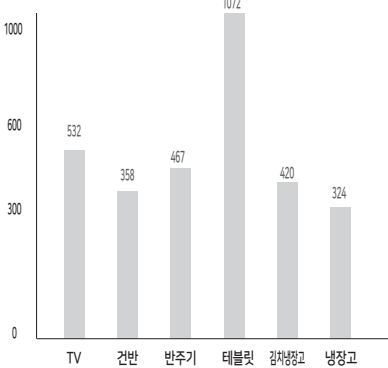
7h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목회자 교단 분포(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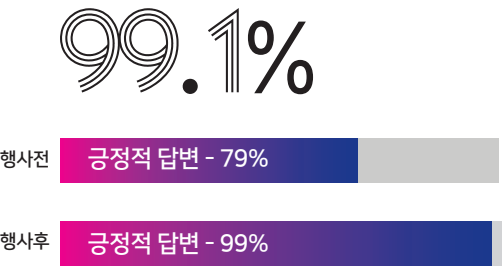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모두는 이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갈 것입니다.

물품 신청 통계



참석 전후 행사 기대감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부흥의 첫걸음, 온전한 제자
First Step for Revival: Teleios Discipleship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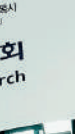
1023

제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주후 2023년 10월 23일(월)~24일(화)

■ 사랑의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감사드림' 예배 | 주후 2023년 10월 8일(주일)

■ 제21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 주후 2023년 10월 16일(월)~21일(토)

10월 10일(목)  이승호 목사 대한침례교총장	10월 11일(금)  김상호 목사 대한침례교총장	10월 12일(토)  김상호 목사 대한침례교총장	10월 13일(일)  김상호 목사 대한침례교총장	10월 14일(월)  김상호 목사 대한침례교총장	10월 15일(화)  김상호 목사 대한침례교총장	10월 16일(수)  김상호 목사 대한침례교총장	10월 17일(목)  김상호 목사 대한침례교총장	10월 18일(금)  김상호 목사 대한침례교총장	10월 19일(토)  김상호 목사 대한침례교총장	10월 20일(일)  김상호 목사 대한침례교총장	10월 21일(월)  김상호 목사 대한침례교총장
---	--	---	---	---	---	---	---	---	---	---	---

사랑의교회 SaRang Church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한국교회를 위한 거룩한 꿈을 제공했습니다

朝鮮日報

사랑의교회 '제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개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23일 열린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개최 예배. /사랑의교회 제공

'제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에서 개막했다. 사랑의교회가 지난해 9월 전국 3700여 교회, 목회자 부부·전도사 등 5596명을 초대해 개최한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에 이은 2회 행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교회와 목회자를 위로하며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자는 취지였다. 1박 2일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사랑의교회 인근 숙소와 고인들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식사를 제공받았다. 국내외 유명 강사들의 강연이 이어졌고, 작은 교회를 위해 물품도 지원했다.

올해 행사에도 참가 신청이 쇄도했다. 지난 9월 6일 등록 시작 직후 신청은 6000명이 마감됐으며 3800여 교회에서 물품 지원 요청이 들어왔고, 3500여명이 숙소 신청을 했다. 신청 마감 후에도 문의가 이어져 1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도 했다.

K기독교신문

제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다시, 부흥을 향하여!"

목회자 부부 7000명 한 자리에
사랑의교회, 온전한 제자의 삶 도전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시작 전부터 한국교회 목회자 부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일찍까지 마련된 사전 예배는 물론 개회예배 내내 합창 찬양과 경오가 이어졌다. 오정현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주님만이 열다'며 14주-13주는 제복에 성경을 통해 "이제는 막강한 세력의 군대에 맞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승리했다"며 "공리였지 무기 앞에 굴절들로 선 다윗처럼, 남북전쟁 직전의 기도실에 들어간 이브라함 일진 대통령처럼 불의의 대항의 열성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자"고 도전했다.

개회예배에 이어 연이어 부흥 메시지가 이어졌다. 첫 강사인 익 위원 목사(세종대학교)는 복상 연평을 통해 "팬데믹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를 할 때 영웅이 되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자신과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격을 갖자"고 강조했다.

이어 강단에 선 켈빈트 아놀드 교수(미들버리대학교)는 "팬데믹 시대의 이후의 영적전쟁을 위한 간구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소년(목사)부마나야 오로교회)는 열렬한 주종(사)으로서의 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를 향한 목회의 길을 도전했다.

참고성은 첫날 목회자를 위한 맞춤형 메시지뿐 아니라 코로나 크리스천 및 하모니의 특별 공연과 찬양기도회를 찬양과 간구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 날에는 순경, 온전한 등 6가지 특강(부흥의 비밀법기)과 선배 장로를 통해 부흥을 위한 제자훈련의 실제를 제시한다.

국민일보

7000여 사역자의 부흥 첫걸음을 응원하다



'제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개최 예배 설교자로 나선 오정현 목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축도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제공

'제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가 열린 23일 오후 경주 주향교회 목사는 총체어를 타고 아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를 찾았다. 처음 이 예배당을 방문한 그는 "교회에 개척한 지 8년이 됐는데 아직 성도가 14명"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도가 더 어려워졌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부흥해서 한 명이라도 더 침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다짐했다.

전북 익산에서 온 서원택 제온교회 목사는 지난해에도 이 집회에 참석했다. 서 목사는 "1년 전 이곳에서 배운 제자훈련법 덕에 성도 10여명이 영적으로 회복됐다. 1년간 누린 감격을 이어가고 싶어 집회를 왔었다"고 밝혔다.

이날 '부흥의 첫걸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주제로 열린 행사엔 전국 초교파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 신학생 등 7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어지는 행사엔 국내외 유명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선다.

개회 예배 설교자로 나선 오정현 목사는 '주님만이 열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오 목사는 "제 사역이 순종정구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 역시 낙심했을 때가 적지 않았다"며 "그때마다 '나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리라'(골 1:6) 같은 고난을 당한 너희를 문전하게 하시며(행전 5:10) 말씀을 붙잡았다"고 고백했다. 오 목사는 "여러분의 목회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자"고 격려했다.

아이굿뉴스 기독교연합신문

"악인의기도는 반드시 응답, 기도하면 부흥"

사랑의교회, 지난 23-24일 '제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부흥의 첫걸음, 온전한 제자의 삶'... 7천여 명 참여



사랑의교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부흥의 첫걸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주제로 제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가졌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고대적 교회를 초월해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서로 7천여명이 참석해 뜨겁게 기도하며 부흥을 향한 열망을 아로모였다.

작년 9월 사랑의교회는 코로나19에 아등고 긴 터널에서 벗어났다. 450여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처음 개최했다.

사랑의교회는 3,200여개 교회의 사역 물품과 코로나 극복 40일 영배한 자료를 후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기독교 제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10년에 개최된 것. 9월 13일부터 시작으로 등록 전수를 마감한 결과, 6천여명 순서(간)의 신청을 받았다. 계속되는 집회 참여 요청에 사랑의교회는 1천명으로 추가로 모집을 정도로 반영을 표기했다.

지난 23일 첫째 날 개회예배에는 원단 수용인원 6천명(석)을 모두 채워, 마치 불가능해졌던 참가자들은 부흥에 벅설에서 모니를 통해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개회예배에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주님만이 열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오정현 목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성이 만능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적 행안함을 주신다. 특히 목회자는 강력한 복음의 전사이고 용사이다. 나에게 유래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한국교회를 위한 거룩한 동력입니다



지난 2010년에 개최된 제3차 로잔대회를 통해 친애하는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와 함께 ‘온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비전을 공유한 일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참석하신 모두의 영혼에 생기를 복돋아 주셔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에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덕버셀(Doug Birdsall) | 前 로잔운동 총재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님과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교회의 ‘회복’뿐만 아니라, 열방의 ‘부흥’까지 일으키는 원리와 이해를 얻는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희 YWAM은 이번 행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칠더스(Paul Childers) | 국제 YWAM 코나 열방대학 대표



모세는 홍해라는 큰 장벽에 부딪혔을 때 적군의 우수한 600대의 병거와 수많은 일반 병거들을 상대할 60만 명의 장정들이 있었음에도 싸우지 않고 기다리며 순종했고, 방벽 같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처럼 기다리며 순종하는 가운데 목자의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섬길때, 바다가 갈라지는 주님의 능력을 다함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형록(Timothy H. Haahs) | Tim Haahs 건축회사 회장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서 하시는 일은 소중함을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틀간 영적으로 심과 편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중요성을 알아주시는 사랑의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연아마틴(Yonah Martin) | 캐나다 상원 의원(보수당 부대표)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님과 영가족들께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잠 14:28)라는 지혜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키바 토르(Akiva Tor) | 주한 이스라엘 대사



팬데믹을 지나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에 앞장서게 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함께 꿈꾸는 기념비적인 모멘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노창수 | 미국 남가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헌신하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와 섬김을 이어온 한국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적인 목회 전략과 함께 굳건한 신앙의 토대 위에 다음세대를 바로 세우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경철 | CTS 회장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바로 금메달리스트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권력자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섬기는 공동체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사랑의교회가 어려운 교회들과 한국 사회를 섬기기 위해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준비한 것은 크게 기뻐하며 축하할 일입니다. 사랑의교회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전 세계에 큰 축복의 채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김상복 |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석한 모든 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장환 | 극동방송 이사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대표적인 교회인 사랑의교회가 이번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계기로 선교와 복음사역의 새역사를 쓰고 세상을 바꾸는 선봉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랑의교회가 이번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진오 | CBS 사장



이번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열리는 사랑의교회 대축제에 축하의 말을 보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현대사 100년간에 항상 앞장서서 역사를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회 안팎의 사정으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사랑의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김진홍 | 두레수도원 원장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갖는 사랑의교회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희망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식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백동조 | 목포사랑의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국의 성도들이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모으는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한국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특별시 시장



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되는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전국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처럼 기도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 기도로 성령충만하여 모든 교회마다 부흥의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장경동 | 중문교회 담임목사



오늘 이 모임이 사무엘 선지자가 소집했던 미스바 성회와 같은 화개와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시대라 하더라도 부흥을 꿈꿀 수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다. 마음과 힘을 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기꺼이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사랑의교회와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장범식 | 숭실대학교 총장



할렐루야!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부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어주신 사랑의교회와 앞장서 수고하신 오정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섬김을 통해 예배가 살아나고 목회가 살아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장종현 | 백석대학교 총장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첫걸음을 위해 앞장서게 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첫걸음을 위해 드린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주시고 큰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전국의 모든 사역자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전위부대가 되기를 꿈꿉니다.

전광식 | 독수리학교 이사장(前 고신대학교 총장)



목회자와 사모 7천여 명을 초청하여 부흥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행사를 기획하시고, 귀한 목회자분들을 성도들의 섬김으로 맞이하며 위로와 교제를 나누는 멋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오정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에 축하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속에 화합의 모습을 드러낼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홍준 | 국제목양사역원 원장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은혜의 날입니다

사랑의교회의 시스템과 환경의 풍성함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 없이 받고 누리며 신앙생활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교섬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큰 감사의 계기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회째 맞이한 한교섬에서 올해는 주차 및 교통정리와 셔틀운행 총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참석하였는데 주변 교통과 셔틀운행이 안전하게 질서가 유지되며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께서 돌아가는 길에 환한 미소로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해주셔서 장시간 봉사의 피곤함을 모두 잊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장하시는 강력한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통 및 셔틀운행 / 노재웅 집사

서울대공원 주차봉사에서 전체 총괄팀장으로 참여하다보니 책임감을 많이 느꼈는데,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며 인사하는 얼굴에서 진정한 영적 유대감과 한교섬 사역의 중요함과 시대적 무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교섬은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귀중한 사역임을 고백합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섬김 / 김두만 집사

복음의 대서명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자리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했으며, 찬양대석에서 바라본 안아주심의 본당을 가득 채운 목회자들의 모습에 흘린 감동의 눈물은 은혜의 눈물

이었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어 복음의 씨앗으로 다시 들꽃처럼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합찬양대 / 김명화 집사

24일 새벽 6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글로벌 광장에서 간식봉사로 섬겼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 쉬는 시간에 간식과 음료, 차를 받으러 오셔서 수고에 고마워하시고 사랑의교회가 최고라고 말씀해주셔서 함께 화답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천안 호두과자를 가져오셔서 부스에서 함께 섬기는 권사님들께 나누어주셨는데, 마치 주님께서 새벽부터 고생하는데 힘내라고 주시는 듯 하였습니다. 돌아보니 저희가 섬긴 것이 없고, 오히려 은혜와 기쁨을 선물로 받은 듯 합니다. 물 떠온 하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음이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간식 섬김 / 김진숙 권사

테이블 세팅과 식사 안내와 뒷정리를 섬기는 가운데 봉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몸을 아끼지 않는 수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석하신 목회자분들을 보며 그들의 삶과 사역의 수고와 아픔이 느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빚어가시는 손길이 느껴져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식사 섬김 / 윤혜영 집사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사랑의교회 성도답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섬길수록 더 기쁘고 가치있는 일이 섬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사역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공감할 수 있었고, 사랑의교회의 시스템과 환경의 풍성함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 없이 받고 누리며 신앙생활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큰 감사의 계기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순원과 함께함으로 인해 더욱 사랑의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주는 특별한 은혜와, 그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사명감을 서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식사 봉사, 홈스테이 섬김 / 이승숙 권사

첫날 참석한 목사님들께 반갑게 인사를 하며 안내를 했습니다. 성도 수가 100명 미만의 개척교회와 시골교회, 통칭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들에게서 평생을 섬겨 온 신앙의 고뇌와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젊은 목사님들의 소망이 온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고, 동질감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락방 순장으로 양이 없는 다락방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순원을 보내주시길 기도하는 부족한 순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나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알기에 감사할뿐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주님께서 그분들의 수고를 아시는줄 믿습니

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내 / 김수경 집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섬긴다기보다는 갚을 수 없는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안내 봉사를 하고 만난 고령에서 온 목사님 노부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았습니다. 말수가 거의 없으셨지만 기도할 때 가장 큰 능력의 언변이 발휘되는 목사님, 항상 웃으며 친절히 말씀하셔서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사모님.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 집을 청소하고 새 침구를 산 덕분에 저 또한 지금 전기장판 없이도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은혜는 현실할 때 받는 것이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내 봉사, 홈스테이 섬김 / 박현경 집사

10.23으로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목회자분들의 기대 가득한 얼굴을 보며, 사랑의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저 또한 그 자리를 통해 한껏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2033-50의 비전'에 작게나마 안내봉사자로서 동참할 수 있는 은혜주신 것이 참 감사하였습니다.

등록, 안내 / 주예강 집사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한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신청했었습니다. 특새 때 남편이 23일에 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폐회예배 때에도 아이가 특송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시간상 하교 후 참석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강변북로의 상황을 열어주셔서 약속된 시간에 잘 도착하여 섬겼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외부 식사 봉사, 숙소 섬김 / 김미남 집사

식사를 마치고 오시며 식당을 안내하던 저에게 다가와 고맙다며 꼭 안아주시고 가셨던 목포에서 오신 사모님이 생각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가족이었음이 감사하고, 안내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교섬에 참석하신 분들과 오가는 우리교회 섬김의 영가족끼리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던 그 밝은 눈빛들이 기억납니다. 섬김이 큰 은혜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외부 식사 봉사 / 황희정 집사

저희 부부는 한교섬 봉사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축제와 같은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받았던 은혜를 되새기면서 올해도 제2회 한교섬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안내 봉사로 섬기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아래를 바라보았을 때, 참석한 분들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 부부는 가만히 서있을 뿐이었는데도 낮은 곳에서 위를 섬기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높은 곳에서나 낮은 곳에서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10.23 한교섬을 통해 섬김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무사고로, 웃는 얼굴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내 봉사/ 권영창 집사 조현숙 집사 부부

모든 섬김의 자리마다 지원자가 차고 넘치고, 굿은 일임에도 기쁨으로 동참하신 많은 분들로 인해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긴장되고 굿은 표정으로 오셨던 분들이 밝은 표정과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을 보시며 곧 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시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하신 목사님들께서 한교섬을 통해 받은 도전과 위로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사 봉사 / 홍승희 권사

외부식당 A,B,C구역의 총괄을 맡아 안내하시는 분들이 정해진 곳에서 정확하게 안내하시는지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식사시간 주변 오피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속에서 한교섬 목사님들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뜨거운 햇살 아래 환한 미소로 응대하는 봉사자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 나왔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식사 후 교회까지 가시기가 멀다는 한마디에 택시를 불러 교회까지 모시고 오는 봉사자를 보며 한교섬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임을 느꼈습니다.

외부 식사 봉사 / 오은주 권사

하나님께서 그의 큰일을 행하시는 역사에 작은 나를 동참하게 해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교회에 주신 비전이 저에게는 크게 느껴지고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번 섬김을 통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33-50 비전'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길 선포하는 사랑의교회의 순전한 믿음보고에 드디어 진심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와 바램 없이 시작한 섬김이었지만 작은 섬김의 자리를 통해 순전한 믿음을 더욱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일상을 지켜내며 앞으로도 사랑의교회의 섬김과 비전에 계속해서 동참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물품지원행정 / 대학부 감지현 자매

한교섬은 일평생 경험치 못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나아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과 열정을 또 고대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웰컴 미니스트리 인포메이션 부스/ 최유와 권사

7천여명의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참여하신 한교섬에 안전봉사로 섬기게 되어 매우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고 있는 저에게 고생한다

며 고맙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본당 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봉사하던 중 본당에서 터져나오는 엄청난 크기의 '주여' 소리를 듣고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회복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안전 봉사/ 김남준 집사

작년 한교섬이 집안의 첫 혼례를 치루는 상기되고 복적복적인 느낌이었다면, 올해 한교섬은 둘째와 셋째를 보내듯 경험치로 얻어진 자연스럽고 안정된 느낌의 잔치 같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섬기는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과 작년에 참석하셨던 은혜를 가지고 순서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목회자분들의 모습들을 보며 이제는 호스트와 게스트를 넘어 한 가족, 영가족이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포메이션 부스에 오셔서 개회예배에서 찬양대가 부른 찬양 악보를 문의하시며 평생 소원하는 목회의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던 목사님, 담임목사님께서 기도회마다 부르시던 찬양의 가사를 물어부시던 목사님, 안아주심의 본당과 요셉꿈다리 등 교회 시설에 붙여진 명칭들을 궁금해하시던 목사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으며 감사했으며, 이것들을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장을 열어 주심에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웰컴 미니스트리 인포메이션 부스 / 김은혜 집사





‘10. 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는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참가하신 목사님, 사모님께서 은혜의 고백들을 남겨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의 고백 가운데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귀한 고백을 나눠주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부흥의 선봉장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작년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섬기는 군인교회의 용사들이 UCC를 제출해서 큰 힘이 되어 이번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주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의 말씀 그대로 사역하며 살았는데, 이번 해에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보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군대교회를 섬기는 군선교사로서 특별히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군선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며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 마음 담아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30기갑 여단 필승교회, 이은성 목사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는 귀한 은혜의 고백 가운데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식사를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주셔서 지극한 대접을 받는 듯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들도 메시지들이 강력했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라는 동일한 말씀들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회 현장에 가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유광침례교회, 이성환 목사

작년에 방문했던 사랑의교회 집사님의 가정에서 전화를 주셔서 올해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왔는데 올해도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신하교회(경북 의성), 윤종 목사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BI

10 한국교회 23 섬김의 날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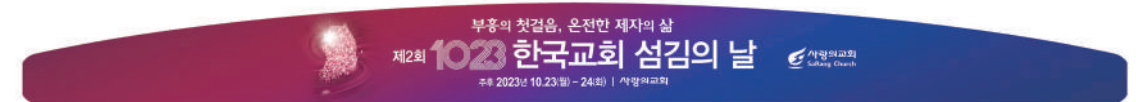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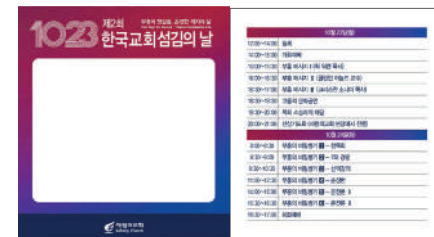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현수막 배너류



1023 2nd 한국교회 섬김의 날
Teleios Disciples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그래픽 제작물



5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우리는 ‘2033-50비전’을 꿈꿉니다





1.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해

1박 2일 양일간 진행되는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이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온전한 부흥의 첫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출발선, 역사의 변곡점이 되게 하시고, '2033-50의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두보가 되게 하옵소서.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모든 지역 교회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꿈꾸며 창조질서에 근거한 강력한 생명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참된 위로와 힘을 얻어 영적 기백으로 충만하게 하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책임지게 하옵소서.

2.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위해

-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든 순서마다 사역의 돌파구가 되는 통찰력을 얻게 하시고, 사랑의교회 안아주심의 본당을 가득 채운 목회자들과 각 교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열리는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부흥을 위한 첫 걸음의 역사가 집필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3.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목회자들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며 재한신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한 목양의 거룩한 바톤을 이어 받아 '2033-50 비전' 성취의 선봉장이 되게 하옵소서.
-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기점으로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모든 목회현장이 영적 갈멜산이 되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성령의 불로 날마다 승전보를 올리게 하옵소서.

4. 담임목사님과 강사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해 전력투구하며 섬기시는 오정현 담임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으신 순서마다 새 은혜 새 역사가 일어나며 한국교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가 온전히 구축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 모든 강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사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능력 있게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5. 섬기는 손길을 위해

-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준비하는 사랑의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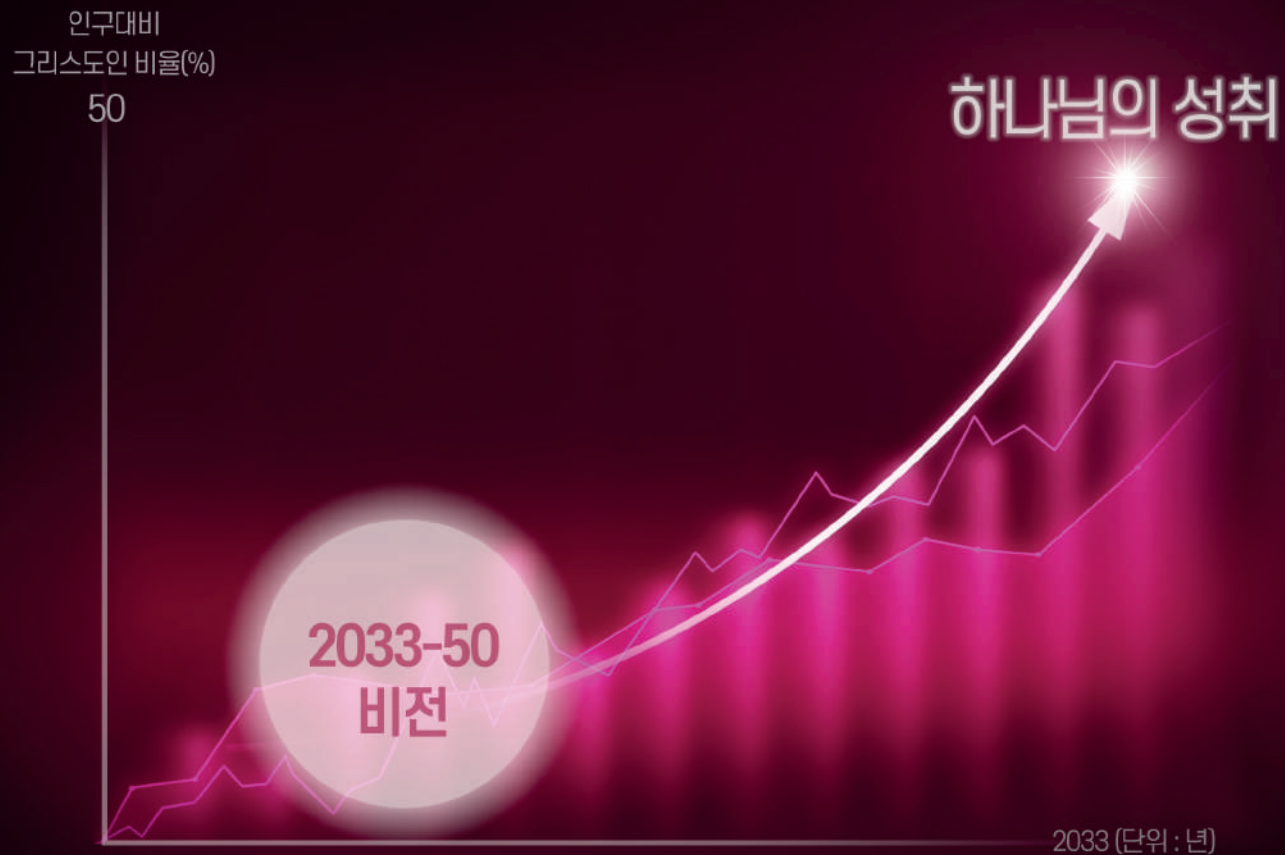
회 모든 영가족들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 참석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진심 어린 섬김으로 헌신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복과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감사할 제목이 더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준비하는 섬김의 손길 위에 경탄할만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실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유통하는 생명의 파이프라인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2033-50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교회의 엔진입니다.



‘10. 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우리 모두는 펄 속에 묻힌 배를 띄우기 위한 노력과 같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내향화의 펄 속에 있는 경직되고 기력을 잃어가는 교회를 다시금 사명의 바다로 띄우기 위해 선교의 밑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바로 식어버린 교회의 엔진에 불을 붙이기 위해 ‘2033-50 비전’은 우리를 다시금 역동케 할 것입니다.

어가기만 하면 ‘2033-50 비전’은 교회를 다시 일으키며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 될 것이다. 교회의 내향화가 에너지의 내부 폭발을 가져온다면,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은 선교 폭발이다. ‘2033-50 비전’은 선교 폭발로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계 선교의 선봉장으로 이끌 것이다. - 오정현, <온전론> 중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교회사를 살펴보았다. 초대교회는 10년마다 40~50퍼센트씩 증가했다. 4세기에는 로마 제국에 1,50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여기서 나는 ‘2033-50 비전’을 보았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0.7명 정도이고, 서울은 0.53명이다. 그런데 ‘2033-50 비전’은 지금부터 1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50%의 신자를 꿈꾸는 것이다. 교회 내의 똑똑한 사람들은 고개를 지으며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중략) 나는 통일 이후의 교회를 생각한다. ‘2033-50의 비전’은 남한은 물론 북한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들

10. 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참석하신 목회자와 사모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제자의 도를 실천한 사랑의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거나 못하는 때에 '서로 짐을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교회를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실로 돌아와도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 텐데 오정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역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에 크게 감동되었으며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성일**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개척 10년만에 교회를 포기하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된다는 은혜를 주셔서 귀한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힘든일이 있어서 주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섬김으로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섬겨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조태희**

첫사랑과 사명감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백번을 들어도 다시 듣고싶은 박희천 목사님의 경사랑 강의, "설교의 두 기둥"을 목숨다해 들으며 일생동안 추구해야 할 말씀생활에 대해 재셋팅하는 시간이 되었고, 오정현 목사님을 통해 받은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며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다가 2024년 10월 21일에 열린 또 사랑의 교회로 뛰어 달려가겠습니다. **김은영**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 줄 이가 없사오니

아내는 2018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을 한지 딱 만 5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개회예배 첫 찬양 소절을 부르는 순간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 줄 이가 없사오니' 라는 말씀을 통해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마침내 치유하시는 하나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중섭**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은혜와 홈스테이

한국교회가 하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사랑의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동역자들에게 제발 제발.....이라고 부르짖고 계시는 듯하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지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이라 다시 이르시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겔 16:6)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오정현 목사님의 영적인 통찰력과, 그러한 교회의 부름 앞에 앞뒤 계산 없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의교회 영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영적 존경심을 표합니다. **이인규**

주께 하듯 하는 사랑의교회 성도님의 섬김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7천여명의 목회자와 사모님들의 땅이 진동하는 기도소리, 하늘을 향한 찬양소리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랑의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은 정말 지금도 가슴 찡하게, 글을 쓰는 이 시간도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의 섬김이었고, 헌신이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피곤하지만 웃음이 머물렀고, 그들의 섬기는 손짓은 천사의 손짓이었습니다. **나규석**

슬픔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시간

저는 남해 작은 어촌 마을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사역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장 부흥하는 모

습은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것은 힘들고 지쳐있었던 제게 하나님의 위로였고, 목회를 끝까지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한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다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슬픔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연복**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한교섬

참석 내내 언제부터인가 말라버린 눈물이 한량없이 흘러내렸고 산상기도회 시간에는 주체할 수 없는 통곡으로 한시간을 울기만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제자 훈련과 GBS 리더로 섬기던 것들이 떠오르며 오정현 목사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란 말이 청천벽력처럼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제자로 삼고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번주부터 새롭게 제자훈련 양육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시간에 '주님 저는 경품 당첨의 대박이 아니고, 은혜의 대박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규화**



2033-50 비전을 기도하며

오정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2033-50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적용하여, 계획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2033년까지 500명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고 더 나아가 100여 곳에 선교 및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의 섬김 속에서 전심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진심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강태원

섬김의 날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는 중입니다

우물속에서 끌어올린 듯한 시원하고 깊은 영성을 온몸으로 채움 받았고 자리마다 소리없이 헌신하신 보석같은 섬김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성전 문을 나설 때에 그 충만과 감사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가 가슴에 일렁일렁해서 만나는 분마다 섬김의 날의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는 중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이렇게 소중한 반주기를 받게 되다니 헌신의 마음이 아름다워 눈물이 납니다. 이토록 큰 사랑으로 섬기신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효진

섬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교회와 성도님의 귀한 은혜는 35년 사역가운데 처음 받아보는 섬김이었습니다. 개척하며 지나온

세월은 모든 것을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탈진만 남아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려던 순간 사랑의교회를 통해 영적, 육적 회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염치없지만, 부디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해 무너져 버릴 수 없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겨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그 손길 위에 주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용웅

기도와 응원에 힘 입어, 주님 발자취 따라 한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이번 사랑의교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서 그래도 아직은 나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희망과 소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할 수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응원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에 묵묵히 이 길을 가려 합니다.

안창용

시간과 물질을 쏟으신 그 헌신에 감동과 감사였습니다. 모든 순서 순서들이 은혜스러웠고, 특별히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큰 금액을 헌금하여 이렇게 섬김의 날이 이루어진 것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릴 때 안내하는 헌신자들, 식

사를 하러 갈 때 중간에서 길을 알려 주시는 헌신자들, 교회 여기 저기에서 숨은 봉사를 하시는 헌신자들! 그분들의 헌신 또한 찬양과 말씀 못지 않게 은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본인의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다들 바쁘신 일들이 있었음에도 시간과 물질을 쏟으신 그 헌신에 감동과 감사였습니다. **이영호**

하나님의 위로와 영혼의 쉼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워진 자리가 비워지고, 그 빈 자리를 바라보며 낙심이 되어가고, 해도 해도 채워지지 않는 텅빈자리는 시골 목회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사랑의 교회의 섬김은 말씀의 풍성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였고, 사랑의 교회 성도님 밝은 미소와 섬김은 로댐나무아래의 쉼, 영혼의 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삶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통전적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위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을 마음에 담고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한 영혼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양규환**

경품으로 스타리아를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강남의 초대형교회가 교단과 작은교회에 대한 편견을 갖지않고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환대해주시는 모습에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노후된 교회차를 새차로 교체하고싶었는데 이번에 경품으로 스타리아를 받게 되니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에 감

사드립니다. 저는 사랑의교회가 7천여명의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교회마다 필요한 사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큰 교회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훈련되고 한국교회를 위하는 오정현 목사님의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깁니다. **최진혜**

사랑의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보다 더 은혜와 회개와 도전에 연일 눈물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 온 성도님들이 세 번의 헌금과 기도로 준비하신 결과로 7천여명의 목회자들의 가슴을 울렸고 비전을 받고 깨어나게 했습니다. 당연함이 아니고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깃들었음을 보게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두메산골 12가호 작은 마을에 일곱 가정 성도와 저희 교회에 불이 켜진 느낌입니다. '2033-50 비전' 속에 불신앙을 물리치고, 꿈을 가진 적은 교인 6명이 밤마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선물해주신 모니터 덕분에 올해 특새를 온라인으로 참석했다는 후기를 전합니다. **이성덕**

꼭 필요하고 적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간절함과 성도님들의 열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강의, 숙소, 식사 등 모두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교회론에 관한 말씀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지난 주 특별새벽부흥회에 이어 참여하게 된 것도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뿐 아니라

기도의 날, 예배의 날, 부흥의 날 등 '2033-50 비전'을 위해 더 많은 모임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과 사모님의 듀엣은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가을 하늘 하래 시원한 수채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국**

설렘과 기대로 작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정현 목사님의 말씀과 강의는 모든 시간마다 제게 너무 많은 도전과 용기와 회복을 주었고, 온전론 강의는 더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기도회 시간과 성찬 시간 등 모든 순서가 주옥같이 귀했습니다. 사랑의교회와 담임목사님과 아낌없는 헌신으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순**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며, 목회사역에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배우고 깨달은 이 모든 것을 더 알고 배우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이 모든 것이 사역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2033-50 비전'을 위해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진행해주시고 여러모로 섬겨주신 사랑의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승규**

내가 먼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가슴에 담고 갑니다. 섬겨주신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

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상태, 안정원 2018년에 개척하여서 열심히 사역하던 중 코로나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3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 올해 6월달에는 가족만 남아 예배 드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충격으로 급성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육이 완전히 지쳐있던 상황에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상황에서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첫 시간부터 은혜의 불을 내려주셔서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진심어린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엄재환**

개회예배 때부터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부르는 찬양마다 받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성가대석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7천 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광경을 보며 이렇게 한국교회의 사역자들이 함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며 많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봉사하시는 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을 보며 아름답고 감사하였고, 이런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에 더 많아져서 2033년에 그리스도인 50%의 꿈이 달성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열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사랑의교회와 봉사해주신 성도님들,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신 오정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강민지**



1023
제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찬양
나의 영원하신 거업
(주송가 425주)
10 한국교회
섬김의 날
한국 교회 섬김의 날
나의 영원하신 거업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백서

10 한국교회
23 섬김의 날

섬김
전심
기도

회복
헌신
예배

다음세대

공동체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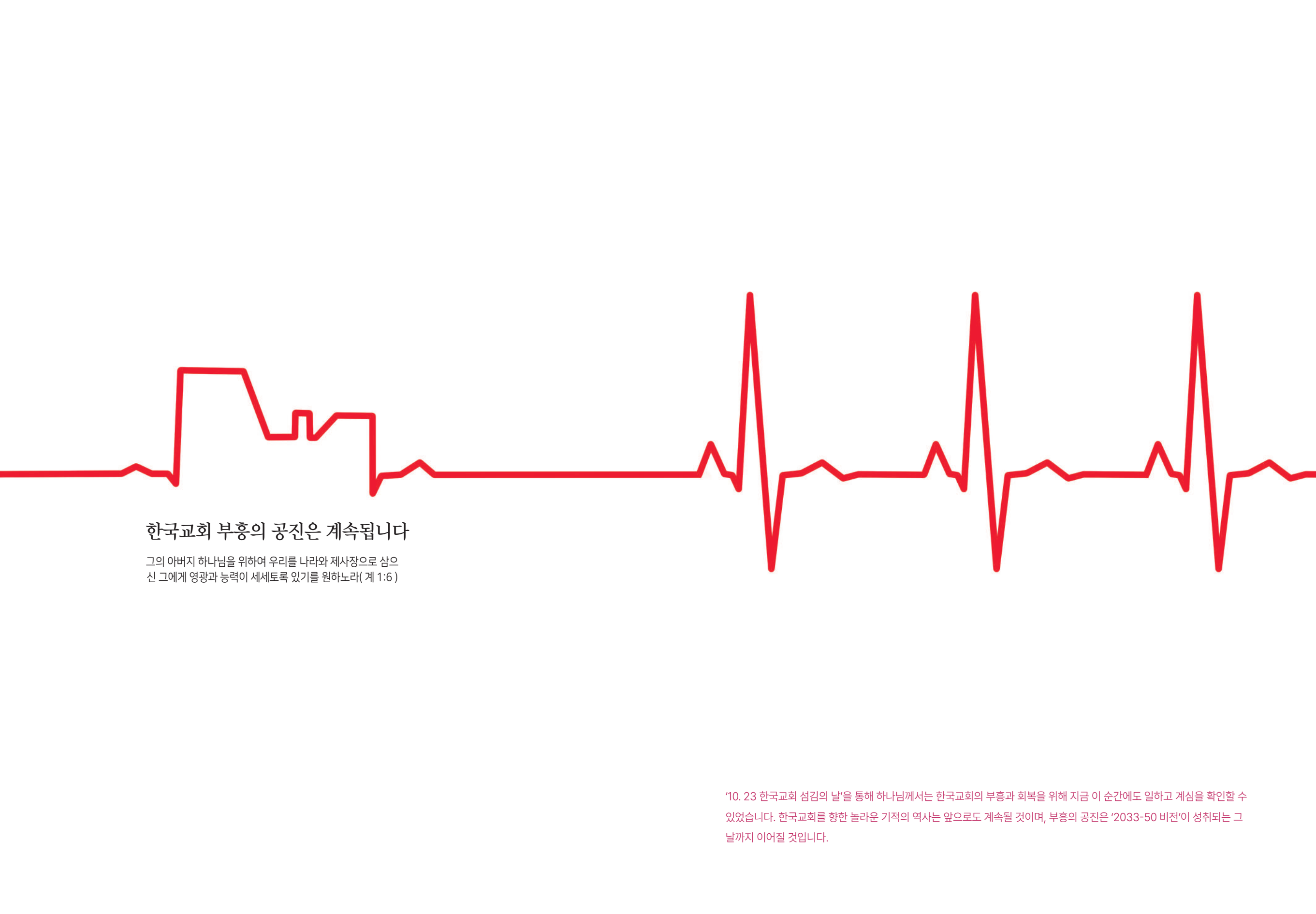
한국교회

부흥

하나님께서서는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한국교회 부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묘막측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우리 모두는 '2033-50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믿
음으로 전력투구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 한국교회
23 섬김의 날





한국교회 부흥의 공진은 계속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
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계 1:6)

‘10. 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부흥의 공진은 ‘2033-50 비전’이 성취되는 그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백서

발행인 오정현
펴낸곳 사랑의교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백서 TF(조철민, 오우진)
발행처 사랑의교회
발행일 2023년 12월 5일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사랑의교회
전 화 02. 3495. 1000-4
팩 스 02. 3495. 1009

 **사랑의교회**
SaRang Church